

# 광주 김치타운 공장 학교급식 탈락

광주시의 김치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사업인 김치타운 내 입점 업체가 학교 급식납품 심사에서 위생상태 불량으로 탈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광주시의회 김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에 따르면 지난 1월 김치타운 내 A업체가 광주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공동납품 심의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김치타운은 광주시가 '김치 종주도시'를 표방하며 지난 2010년 개관한 김치박물관(마파크로 김치의 문

## 시설 위생불량...교육청 심사에서 탈락

## 뒤늦게 시설개선...김치산업 육성 무색

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다.

A업체는 지난해 5월 광주시와 계약을 맺고 김치타운에 입점했다.

A업체는 광주시교육청 공동납품 심의에서 생산시설의 녹슬음·곰팡이가 발견돼 위생상태 불량으로 해당 부문 0점을 받았다.

당시 심의에는 A업체를 포함해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A업체와 다른 1곳 등 2곳이 탈락했다.

광주시는 A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에서 탈락한 후 문제가 된 시설을 보완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김치산업을 대 표하는 김치타운 공장이 학교급식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뒤늦은 시

설 개선은 '뒷북행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월 11대 대표산업 중 하나로 김치·음식산업을 선정할 때도 무색하게 됐다.

김 의원은 "김치타운 내 김치공장은 공유재산으로 광주시가 임대하기 전 시설을 개선해야 했다"며 "광주 학생들에게 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김치를 전국화, 세계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선봉우 기자

## 美살인용의자 14개주 60명 연쇄살인 자백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70대 용의자가 적어도 14개주 60명의 추가 살인 혐의를 받으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연쇄 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텍사스 검찰은 지난 7일(현지시간) 적어도 14개 주에서 60명 이상의 살인 사건에 새뮤얼 리틀(79)이 연루된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 중에는 리틀이 지난 오키오주 수사관들이 포함됐으며, 적어도 5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틀은 LA 지역에서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캘리포니아에 수감중이며, 텍사스 여성 1명을 추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경찰은 "리틀이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이 시점에 자신의 희생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결심을 굳힌 것 같다"며 최근 자신의 살해 범죄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리틀의 재판에서 검찰은 1980년 이후 최소 40건의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당시 당국은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키오, 텍사스에서의 살인 사건에 대한 연관성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리틀은 당시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리틀은 그러다가 1994년 12월 텍사스주 서부 오데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범행을 지난해 인정했다.

이후 리틀은 자신의 범행을 하나 둘 씩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 경찰에 따르면 그는 99명의 살인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공조 수사에 나섰다.

결국 이같은 수사 내용이 해당 주의 법 집행기관에 전달됐고, 수십년 된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수사관들이 모이고 있다.

오키오주는 1981년 신시내티 살인사건이 리틀과 연루됐다고 발표했으며, 클리블랜드는 지난해 2명의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그린 리버 킬러로 불리는 게리 리그웨이는 49명의 여성과 소년들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돼 있다. 그는 자신이 71명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 이란, 이슬람율법 어긴 식당 547개 폐쇄

이란 테헤란에서 식당 및 카페 547개가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강제 폐쇄됐다. 법으로 금지된 음악을 트는 등 반당하게 영업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호세인 라히미 이란 테헤란 경찰청장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식당과 카페들을 조사한 결과 547개 식당을 폐쇄하고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현지언론 파르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 경찰 당국은 열흘 간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식당들의 폐쇄 이유는 '사이버 상의 비전통적인 광고, 불법적 음악 방송, 방탕' 등이다.

지난 2012년 이란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 손님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보안카메라 설치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 테헤란에서 인기가 많았던 '카페 프라하'의 업주는 페이스북에 "빅브라더의 감시 눈(보안카메라)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보다는 차라리 폐업하겠다"고 밝히고 가게 문을 닫는 등 일부에선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 美 보스턴서 지하철 차량 탈 9명 입원

미국 보스턴에서 8일 오전 11시(현지시간)쯤에 지하철 차량 1량이 탈선해 9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보스턴의 메사추세츠 베이 교통국 관리들은 이 사고가 켄모어 광장 부근의 그린 라인 지하철의 한 터널 안에서 일어났으며, 부상자 가운데 생명이 위험한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10번째 부상자는 부상을 당했지만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고 차량의 목적자들은 갑자기 차내의 등이 꺼지고 갑갑해지면서 객차 안에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내동댕이쳐졌다고 당국에 말했다.

지하철 탈선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이 탈선 사고가 원인이 되어 보스턴 시내에서는 주요 공공 교통의 차량 운행이 지체되었다.



분주한 인양작업준비 본격 선체 인양이 임박한 9일 오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인양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광주 친일 교가 교체 붐...광덕 이어 대동고 새 교가 완성

TF팀 구성 후 4개월만에 새 교가 제작 완료

작곡가 김동진→허걸재, 13일 새 교가 발표

광주 광덕중·고에 이어 대동고도 친일 잔재 교가(校歌)를 교체했다.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잔재는 깨끗이 털고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9일 대동고 학교법인과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학생독립운동 90주년 이자 개교 50주년을 앞둔 올해 친일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의 첫 사업으로, 친일 교가 교체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학생과 교사, 동문과 법인 대표 등으로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린 지 4개월 만이다.

친일 음악가로 분류된 김동진이 만든 곡은 없애는 대신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허걸재 작곡가의 곡으로 교체했다. 국립합창단 전임 작곡가인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음악 작곡가로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 현장에서 현지인들이 진행한 추모제에서 불린 '미사 이리랑'의 작곡가이기도 하다.

학교 관계자는 "연초에 광주시 의뢰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이 친일 잔재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오랜 기간 불려왔던 귀에 익고 친숙한 교가가 친일 인사의 곡으로 판명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교체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학교의 정체성을 세우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사는 친일과는 관련 없는, 덕망 있는 대학교수가 지은 것이어서 보

존키로 했고 2006년 2월 남구 봉선동에서 서구 매월동으로 이전한 만큼 '봉선의 언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역시 옛지리의 상징성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광덕중·고와 대동고를 비롯, 금호중양여고, 광주 일고 등이 '친일음악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거나 부르려 할 순 없다"며 교가를 바꾸기로 하는 등 광주교육계에 교가 교체비밀이 불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현장 친일 잔재 조사·청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친일 잔재물에 대한 청산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광주 대동고는 1972년 개교 이래 올해까지 2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인호 기자

## 환경단체 "보 해체 통한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

광주·전남 환경시민단체가 8일 "막힌 물길을 뚫고 강을 흐르게 해 장어·황복이 돌아오는 영산강 재자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2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10년을 맞아 이날 오전 광주 남구 승촌보에서 보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은 질적 성장성 하천사업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영산강은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와 물고기 폐죽음을 겪으며 '악화일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서 '악화된 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4대강 재자연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면서 "정부는 강 재자연화를 위해 승촌보 상시 개방과 죽산보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보 해체를 저지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며 농업용수 이용과 환경성 회복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막대한 혈세로 4대강을 파헤친 책임자들이 강을 살리는 정책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을 규탄했다.

또 "지속가능한 생명의 물길로 되살리는 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면서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 항구대책과 함께 보 해체는 가능하다. 현재의 보 처리 방안이 이어 추후 승촌보도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영산강 하구둑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최남규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에는요...  
자폐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검진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